

이에 대해 황 의원은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불균형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구이동 같은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광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.

그러면서 황 의원은 한국은행의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론은 사실상 지방 소도시 포기론으로 느껴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.

황명선 의원은 대학교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농산물 수입확대 등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방소멸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.

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“한국은행의 연구 노력을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”면서도 “한국은행이 중앙집권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지방소멸에 대해 더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<끝>

최근 한국은행의 '사회구조 개혁' 관련 연구

문제의식

- 저출산 · 고령화
- 고물가(식료품)
- 지역 불균형
- 교육 불평등
- 서울 주택가격

정책제언

- 돌봄 외국인노동자
최저임금 차등 적용
- 농산물 수입 확대
- 거점도시 중심 발전
- (대 학)지역별 비례선발제

국회의원 황명선

[그림 30] 생산성 제고의 타지역 GRDP
파급효과(%)¹⁾

<동남권>

| 지역 | 경남 | 부산 | 울산 |
|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경남 | 1.00 | 0.50 | 0.16 |
| 부산 | 0.91 | 1.00 | 1.12 |
| 울산 | 0.06 | 0.64 | 1.00 |

<충청권>

| 지역 | 대전 | 충남 | 충북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대전 | 1.00 | 0.94 | 0.16 |
| 충남 | 0.00 | 1.00 | -0.29 |
| 충북 | -0.19 | -0.05 | 1.00 |

<호남권>

| 지역 | 광주 | 전남 | 전북 |
|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광주 | 1.00 | 2.45 | 2.26 |
| 전남 | 1.00 | 1.00 | -0.41 |
| 전북 | 0.86 | 0.06 | 1.00 |

<대경권>

| 지역 | 경북 | 대구 |
|----|------|------|
| 경북 | 1.00 | 0.72 |
| 대구 | 1.52 | 1.00 |

주: 1) 행은 생산성 제고 지역
자료: 저자 계산

국회의원 황명선

